

윈 리어우와린의 소설 『평행선상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공감의 역동성

최 난 옥*

I. 서론

윈 리어우와린¹⁾의 『평행선상의 민주주의』²⁾는 왕정체제였던 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충돌 및 조화에 대한 공감을 살펴볼만한 작품이다. 1932년 입헌혁명 후 1992년 잔인한 5월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60년간 벌어진 역사상 굵직한 실제 사건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형상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한 군부가 입성하면서 국민, 국왕과의 관계상의 부침에 대해 역사적 사료를 가미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의 역량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현재 태국인의 교양도서이자 1997년 동남아시아 문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강사

1) 윈 리어우와린은 1956년 쑹클라 핫야이에서 출생. 방콕에서 쫄라롱컨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5년 간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생활. 그래픽, 영화, 만화 공부를 하고 건축 설계기, 실내장식가, 그래픽 디자이너를 거쳐 전업 광고인이자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 어려서부터 책벌레여서 교실에서도 하루에 두 권의 책을 탐독. 범죄, 무술, 과학 소설에 이르기까지 관심 분야가 다양하며 의외의 결말구조로 된 단편소설을 가장 좋아함. 한 권에 1바트 짜리 만화 그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단편·장편소설 창작. 작은 광고회사의 창작분야 이사이자 예술 감독 역임.

2) 본고에서 사용되는 태국어 문헌은 『Prachathipatai bon Senkhanan(평행선상의 민주주의)』(Win Lyovarin 1997, Bangkok: Dokya). 앞으로 이 소설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태국어의 영문 표기는 태국 왕립 학술원이 정한 표기법에 따른다. 다만 저자가 사용하는 영문일 경우 그에 준한다.

상) 수상작이다. 당시 이 상의 심사단은 “작가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은 채 정권 쟁탈의 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출혈과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Win 1997: 서문)라는 말로 이 소설의 우수성을 밝혔다. 기법은 “이야기의 큰 갈등과 각 장마다의 작은 갈등으로 묶는 기법을 사용”(Ingon 2009: 189)했다. 태국의 근현대사에 접목되어 형상화된 이 소설에 대해 역사학자인 쑤푹 단뜨라꾼이 제기한 쟁점은 “자료와 실제 사건의 왜곡, 사실과 다른 날짜에 있다.”(Satpoom 2003: 176)이다. 이런 지적 이후 작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러한 대응은 실제 역사에 대한 작가 나름의 해석에 따른 고유의 문학 영역이 있다는 의미이다.

작품의 전개를 이끄는 허구의 인물은 입헌혁명 이후 등장한 군부 정권을 타도하고 왕정복고를 시도하는 반란군에 가담함으로써 반체제 인사로 전락한 귀족가문의 군 장교와 그를 추격하는 평민 출신의 경찰이다. 서로 다른 출신의 이 두 남자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대화를 시도하여 소통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가치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마이클 샌델 2010: 361)라는 말처럼 이 두 인물에게 정의와 애국심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의기투합하여 함께 불의에 맞서는 동지가 되면서 진가가 나타난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기까지의

3) 동남아시아 문학상(S.E.A. Write Award)은 1979년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지역 내의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발족되었다. 매년 동남아시아 각국마다 단 한 명의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참가한다. 태국에서는 장편소설, 시, 단편소설의 장르 순으로 해마다 돌아가며 한 편씩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매년 8월말 방콕 오리엔탈 호텔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과정은 “서열을 하찮게 여기고, 네트워킹 방식으로 사람이나 세상과 관계를 맺고, 협력이 체질화되어 있고, 자율과 배척보다는 접속과 포함에 관심이 있고, 인간의 다양성에 감수성이 강한 밀레니엄 세대는 역사상 가장 공감적인 세대가 될 확률이 크다. 분산적이고 협동적이고 비위계적인 사회가 곧 공감적인 사회이다.”(제러미 리프킨 2010: 674)와 같이 공감의 사회로 가는 여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태국 민주주의 정착 과정 중에 발생한 충돌과 갈등에 대한 감성체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태국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신뢰와 불신, 희망과 분노에 대한 공감대가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지도자의 역량

오늘날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는 지구공동체 구성원의 위치에서 조국과 지역 내의 국가 그리고 세계 국가를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지도자의 역량은 시대와 장소에 맞춰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최고도로 발휘된다.

태국 쑤코타이 시대(1238-1438) 3대 람캄행 대왕은 상좌부불교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아유타야 시대(1350-1767)의 문학인 『리릿웅간챙남』에서는 지도자의 탄생 배경을 알 수 있다. 브라만교 사상이 배경으로 천상에서 창조된 신인 프롬 신이 하강하여 인간이 되는데 서로 식량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지도자의 자격 세 가지는 용감성, 지혜, 용모이다. 지도자인 왕이 인간 중에 선출된 점에서 브라만교가 아닌 불교 사상이 접목된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귀신이 벌을 주는 점은 토속신앙이 근간이다. 이러한 브라만교, 불교, 정령신앙이 태국인의

정신세계의 토대를 이룬다. 톤부리 시대(1767-1782)에 딱썬 왕이 종교와 승려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려한 행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랏따나꼬썬 시대(1782-)의 초대 왕은 라마 1세이다. 라마는 문학 『라마끼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아유타야 왕국의 왕이다. 라마라는 호칭은 태국인들에게 보다는 대외적으로 널리 통용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브라만교 사상은 비슈뉴 신이 라마라는 인간으로 환생한 점이다. 라마가 마왕 툏싸간과 대결할 때 원숭이 장군인 하누만이 라마를 도와 승전한다. 하누만이 신하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통치자의 위치를 요구하자 라마는 나라의 반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나 통치에 무능한 자신을 깨달은 하누만은 라마에게 다시 영토를 돌려준다. 여기서 적을 이겨야하는 전쟁과 정적까지도 포용해야 하는 통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누구나 통치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통치하지는 못하고 대관식을 거쳐 인정되는 것이 태국의 통치 사상의 근본이다. 태국 현대사에서 쿠데타를 성공시킨 주동자가 바로 수상이 되지 않고 과도기를 이끌 인물을 내세운 뒤를 기약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권력을 탐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명분이 필요해서다. 이는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에서 항상 라마의 충복의 위치에 있는 하누만과도 다른 점이다.

태국에서 태생권이 중시된 것은 라마 4세 때부터다. 어머니가 고위가문 출신이 아니었던 이복형 라마 3세와 달리 라마 4세의 경우 양부모의 좋은 혈통이 부각된다. 그러나 어려운 국내 통치와 복잡한 세계정세가 얽혀 있었던 라마 7세 때에 이르러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을 자각한 시민의 경우에는 통치체제의 변화를 강도 높게 요구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발한 것이 1932년의 입헌혁명으로 이로써 입헌군주체제가 들어선다.

이 소설에서는 입헌혁명을 주도한 인민당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

된 권력쟁탈전이 형상화된다. 당시 정권이 외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태국인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여 진정한 체제 변화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이 소설은 암시라는 제목부터 시작하여 태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에 따라 불기 연도로 제목을 붙인 11편⁴⁾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종합적으로 하나의 긴 이야기의 틀을 이룬다.

이 소설의 서두는 “역사의 한 장에 잔인한 5월로 기록된 사건이 지난 지 6개월이 된 1992년 11월 어느 날”(10)이다. 노년의 뚜이와 여이가 여명에 방콕 림피니 공원에서 만나 잔인한 5월 사태⁵⁾와 그 처결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이들의 대화는 과거 1933년에 만나서 1932년 입헌혁명부터 시작하여 지난 세월에 겪었던 사건에 대한 회상과 한 편씩 끝날 때마다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내용상 주역으로 실제 사건에 투입되는 허구의 인물인 여이와 뚜이의 공통된 마음은 애국심이다.

“1933년부터 시작하여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인 경찰 뚜이 판 켄. 각 장은 그가 개입하거나 관련된 정치적 이야기가 있다. 그가 뭔가 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각 장마다 내란죄에 비견되는 처지에 있는 루엡 끄릿싸다위닛 혹은 여이를 만나도록 되어있다. 끄릿싸다위닛은 뚜이와는 다른 정치적 이상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서있어야 하는 적이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공통된 바탕은 애국심이다. 그래서 종국에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협조하는 관계가 된다.”(Ingon 2009: 189)

4) 이러한 불기 연도의 제목을 서기 연도로 환산하면 1933, 1939, 1940/1945, 1947, 1951, 1957, 1965, 1973, 1976, 1980, 1992 이다.

5) 국민의 선출에 의거하지 않은 수상 쑤찐다 크라쁘라운 육군대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작된 찰령 전 방콕시장의 단식농성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어 그 결과 1992년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수도 방콕에서 벌어진 무력 진압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주목할 점은 뿌이와 여이에게는 이러한 애국심외에 올곧은 성품이 있고 이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서 서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서로의 성향이 같을 때 공감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Ⅲ. 공감의 역동성

지도자가 역량을 발휘하자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동체 구성원이 공감하도록 정성스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태국인이 공감하는 바가 서로 달리 드러난 양상은 크게 보면 1932년 입헌혁명과 이후에 일어난 왕정복고 운동,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피분 정권이 택한 공수동맹과 이를 반대해 일어난 자유타이 운동, 그리고 전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으로 점철된 냉전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사건을 겪는 과정 중에 각자의 목적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사랑하는 국왕이라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 점에서는 태국인이 한마음을 보인다.

1. 정체 변화에 대한 공감의 두 양상: 입헌혁명과 왕정복고 운동

여이가 함정수사⁶⁾에 걸려 검거되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라마 7세가 왕좌에서 물러난 것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자유권을 주기위해서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권을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왕과 같은 지도자를 염원해서다.

6) 여이가 함정수사로 검거된 것은 피분의 1차 정권 때로 정적 소탕을 위해 특별 법정이 선 때다. 여이는 반군이 수상 암살하는데 고용됐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언도를 받는다. 여이는 수상의 의심증을 자극하는 최후 진술이 통하여 사형 직전에 살아남는다.

“...프라반솨뎡프라뽁끌라오짜오유후어께옵서 1934년 3월에 왕좌를 포기하실 때 친서 일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지요. 본인은 본인의 기존 왕권을 포기하고 모든 인민에게 기꺼이 내어 놓는 바이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모든 권한이 인민대중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않고 독재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특정한 어느 단체 인사에게 넘어가는 것에는 승복할 수 없다..”(73)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뚜이가 장교들에게 밝힌 1932년 입헌혁명에 대한 평가는 “국민적 지지 기반이 결여된 권력 찬탈”(341)이다. 이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직한 심정이다. 비록 인민당에게는 태국을 위한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초기 민주주의 체제의 추진 과정상 실책이라면 군대의 힘에 의존한 통치자가 국민들에게 헌법은 가장 신성한 것이며 문명국가가 되려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 결과는 “헌법은 신체제의 기본 노선이 되고 반면 민주주의는 부차적 노선으로 변해버려서 헌법이 있으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게끔 만들었지요!”(342)이다. 국민의 형편을 세세히 살피는 노력보다는 법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이 문제다. 입헌혁명의 주체인 인민당이 초기에 헌법만 믿고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국민의 잠재력’을 믿지 못해서다. 그 외에 당시 불안정했던 세계정세의 여파도 있다. 이는 인민당의 수뇌인 뿌리디가 제출한 국가 경제기획안에 대한 반대세력의 반발에서 확인된다.

“그 황서는 뿌리디 씨가 스탈린에게서 영향 받은 게 아니라면 스탈린이 뿌리디 씨에게서 영향 받은 정책이라는 평이 있었지요. 당시에는 이 공산주의 체제를 무척 두려워했어요. 1917년의 러시아 유혈혁명의 사례를 봤거든요. 1927년부터는 중국에서의 토벌을 피해 태국으로 도망쳐 들어온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디 씨가 공산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거죠.”(139)

“프라야 마노 수상은 국회 문을 닫고 헌법 일부 조항을 사용 중지시켰어요. 뿌리디 씨는 조용히 국외로 추방됐어요. 나는 그것이 태국 민주주의에 있어 최초의 오점이라고 생각해요.”(139)

뚜이는 처음에는 체제 수호에 충실한 경찰이었다. 이런 뚜이에게 여이는 입헌혁명은 태국인들이 맞아들일 준비가 안 된 채 발발하여 국왕의 통치권이 일부 독재군인에게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이는 “앞으로 20년 후에도 싸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었치락 뒤치락할 거야. 이렇게 시초가 나뻐기 때문에 말이야!”(45)라고 한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절차가 잘못되면 그 후유증은 예상을 초월한다.

여이의 원래 신분은 군 장교이자 루엡이란 작위⁷⁾의 끄릿싸다위넷이며 대대로 왕가에 충성한 집안출신이다. 그의 부친은 인민당을 반대한다는 모함을 받고 실직하여 상심한 끝에 숨을 거둔다. 그런데도 여이는 처음에는 입헌혁명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여이가 1933년 버워라멧 왕자의 쿠데타⁸⁾에 가담하여 왕정 복고 운동을 하고 반체제인사가 된 이유는 “1933년 6월 20일 프라야 파혼과 루엡 피분송크람이 제2차 혁명을 일으켜 초대 수상인 프라야 마노에게서 정권을 탈취하고 국왕의 권력이 몇 안 되는 소수 군인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에 분노했어. 심지어 한 시민이 대담하게도 국왕이신 라마7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자 그는 주저 없이 버워라멧 반란군에 가담했어.”(39)이다. 일부 혁명군의 정권야욕과 국왕의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7) 태국에서 작위는 1등급인 짜오프라야에서부터 프라야, 프라, 루엡, 쿤 등이다.

8) 육군대장 버워라멧 왕자는 1932년의 입헌혁명은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소수 군부의 정권장악에 발발하여 자칭 구국단이라 하며 왕정체제로의 복고를 기도한다. 왕실에 충성하는 구 귀족들이 합세했으나 실패한 유허 쿠데타이다. 왕자는 인도네시아로 망명생활을 떠났다가 16년 뒤 귀국한다. 이 쿠데타의 진압대장인 피분은 이를 계기로 이후 그의 위치는 확고해진다.

여이는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도 반란군의 군자금을 대주고자 주로 부정축재한 질 나쁜 부잣집만을 습격하여 의적 여이로 이름을 날린다. 뚜이 역시 여러 명의 강도와 의적 정면 대결로 단 한 방에 제압함으로써 ‘귀신같은 명사수 뚜이 상사’로 명성을 날린다. 뚜이의 매복으로 붙잡힌 여이는 절망하지 않고 결투를 신청하고 승리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여이가 대결하기를 즐기는 뚜이의 기질을 간파하고 대화를 시도하여 소통이 된 것이다.

여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 노력이 천부적인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⁹⁾에 빠진 뚜이 앞에 여이가 나타난다. 대결에서 지면 자신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뚜이에게 호감을 느껴서다. 여이는 “난 도전 정신이 없는 인간이 제일 싫어. 특히 패배했다고 마음이 약해져서 밤낮 술독에 빠져있는 인간”(34)이라며 뚜이의 화를 돋운 것은 승부근성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총이야. 그걸 집어 들고 다시 나를 쏘봐. 널 기다리마. 다시 나와 겨눌 자신이 없다면 다음 생에는 개로나 태어나라!”(34-35)라는 말에는 총잡이가 총을 놓을 때 삶의 희망도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여이의 말에 뚜이가 공감한 것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뚜이가 두 번째로 여이를 체포하러 나서게 된 것은 경찰국장의 지시에 따라 “반란군에 관한 문서를 가진 한 사람”(41)이기에 생포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만남에서 여이는 “패자는 반란군이 되고 승자는 자동적으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일 뿐 다를 게 뭐가? 만약 1933년의 쿠데타군이 반란군이라면 1932년의 인민당도 반란군이긴 마찬가지야. 당신이 승자의 편에 서있는가 패자의 편에 서

9) 뚜이는 6살 때부터 부친이 날마다 사격연습을 시켜 18년간이나 했다. 그러나 5년간 연습한 여이와의 대결에서 총을 뺏 때 이미 여이의 총부리가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여 참패를 당했다. 그래서 평생 연습해도 여이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밤낮 술에 취해 살았다.

있는가만 다를 뿐이지.”(44)라고 하며 반란군과 정부군의 죽음을 동격으로 보지 않는 뚜이의 사고방식에 제동을 건다. 생명의 존엄성은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데에도 적용된다.

여이가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편에 서있어. 각자의 이념에 따라 평행선상에 서 있어.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어. 흰 색도 없고 검은 색도 없어. 만약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나와 결투하고자 한다면 그냥 나를 사살해. 사내대장부인양 결투할 필요가 없어.”(44)라고 한 말은 비록 당장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에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언젠고 상황이 바뀌면 이해될 수 있기에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 뚜이가 질 것을 알고도 여이에게 다시 대결을 시도한 이유가 있다. 기차머리를 몰고 대 공포탄을 적재한 정부군의 기차와의 정면충돌을 시도해 자신의 부친을 죽게 한 장본인이 여이임을 알게 된 뚜이는 부친을 대신해 대결을 청한 것이다. 뚜이는 다시 승리를 거두고 떠나는 여이를 공격하려던 킹코브라를 사살한다. 뚜이가 이 뱀을 보고 미소 지은 것은 정확히 눈중앙을 관통시켜 명사수로서의 자긍심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여이는 정부의 함정수사에 걸려 검거된 후 “1938년의 특별 법정 이 비록 신성한 국회의 인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세워졌지만 특별히 정적 처리용으로 세운 법정”(66)에 선다. “법원이 침해된다면 그때 국가도 공겁(空劫)으로 들어간다고 믿는다.”(66)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법원을 비난한 여이가 사형집행 중에 살아난 것은 수상 피분¹⁰⁾의 의심증을 역으로 이용한 발언을 법정에서 한 것이 적중했기 때문이다. 여이는 법정에서 만약 수상의 측근에 있는 적에 대해 발설한다면 정부의 안정성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될 거라는 말로

10) 피분의 이름은 블랙으로 ‘이상하다’라는 뜻이며 약어로는 ‘빠’라고 한다. 태국인은 이름으로 통칭되지만 블랙 피분송크람의 경우는 예외적이며 간단히 피분이라 부른다.

수상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 루영 네띠쑹크람 소령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 결과 투옥된 검사에게 여이는 “당신 상관의 결백한 사람을 쉽게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을 의심할 수 있는 것도 매한가지야.”(81)라고 한다. 의심 많은 권력자 밑에서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이는 이렇게 사형 직전에 살아난 것 외에 이후 두 번에 걸친 생사의 기로에서도 살아난다. 유배지인 따루따오 섬에서의 탈출과 제2차 세계대전 막마지에 자유타이 대원으로 비밀임무를 띠고 국내에 잠입했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었을 때이다.

여이는 따루따오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유배지 소장인 짜엑에게 발각되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태국 정치를 추하게 보는 짜엑에게 여이는 “정치는 더럽지 않소. 일부 정치가만 더러울 뿐이요. 소장님은 정치에 관련된 이가 다 나쁘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요. 민주주의 체제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요.”(116)라고 한다. 일부의 잘못을 놓고 전체를 비난하는 사고방식은 잘못이라는 지적은 명심할만하다.

여이가 짜엑에게 밝힌 왕정복고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권력을 쥔 자가 1932년 6월 24일에 약속했었던 민주주의 체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117)이다. 입헌혁명을 주도했던 당시 정권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다. 이 말의 효과는 정부가 짜엑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지 알 수 없는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탈주범 여이를 사살하면 복직시켜주고 가족의 품으로 보내준다는 정부의 달콤한 약속을 기대하는 짜엑의 마음을 여이는 알아주고 원망도 않는다. 짜엑이 여이에게 혁명에 성공하면 권력에 홀리지 않겠냐고 하자 여이의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117)라는 말은 비록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이런 불신과 희망에 대한 공감의 위력은 짜엑의 마음을 움직여 여이의 탈출을 방조하는데서 나타난다.

2.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두 대처법: 공수동맹과 자유타이 운동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여이는 자유타이 운동의 죽음의 결사대원으로 국내에 잠입한다. 수상 피분이 일본과 공수동맹을 체결한 것에 반발하여 창설된 이 지하조직의 목적은 “임시정부를 세워 일본을 태국 영토에서 몰아내는 것”(97)이다. 실제로 이 조직이 연합국을 지원한 일은 종전 후 태국이 승전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여이의 임무는 나중에 뿌리디 파놓음으로 밝혀진 자유타이 대장 롯을 만나 비밀문서를 전달하는 시늉으로 일본군에게 연합군의 총 공격 날짜에 혼선을 주면서 연합군의 정보를 누설하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이다. 접선자인 이싸라에게 여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험이란 건 국가의 생사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소”(110)라 한 데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이는 조국이 건재할 때 자신도 생존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경지이다. 반면 여이를 일본군에 넘긴 매국노 이싸라는 “살아있는 매국노가 이미 죽어버린 애국자보다 더 낫지.”(113)라고 하며 현실의 삶에 집착한다. 1939년의 반란에 연루되어 겪은 고통의 결과 절대 패자의 편에 서지 않기로 결심한 이싸라에게 여이는 “심지어 전 세계의 적이 되는 편이라도 말인가.”(114)라며 반문한다. 여기서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지구 공동체를 보는 여이의 거시적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 나까무라는 여이같이 끈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솔직해야한다는 것을 아는 인물이다. 그가 “당신 같은 참된 군인이 일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애석해. 하지만 당신 조국과 다른 국가들에 당신 같은 인물이 극소수라서 다행이야. 그러니 우리 일본은 세계의 반을 집어삼킬 수 있지.”(119)라고 한 말에서 일본인과 다른 나라 사람을 차별화하는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다른 나라 사람은 결코 일

본인과 동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이는 “만약 이 미친 전쟁만 아니라면 당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좋은 적수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119)라며 호적수를 만나 기쁜 심정을 표명한다. 서로에게 호감을 표명하는 이런 소통은 패전의 소식을 접한 나까무라가 여이를 풀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여이는 “지하운동단체인 자유타이 운동에 가담한 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난 인생을 또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 세상은 흰색·검은색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좋은 사람·나쁜 사람도 없고.”(147)라며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 구도로만 보는 사고방식에 제동을 건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 적이 된 경우는 선악으로 구분지을 일은 아니다.

곧은 성품은 여이 못지않게 뿌이에게도 있어 “비록 그는 수상의 정책과 추진한 일 중에서 더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수상을 존경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충성을 바쳤다. 그리고 이러한 곧은 심성으로 인해 그로 하여금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었다.”(207)와 같이 이런 곧은 성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위력이 있다. 그래서 뿌이는 체제 내에서 피분 수상의 경호원으로까지 발돋움한다.

1947년 핀 춘하완 육군대장이 주도한 쿠데타에 대해 “부정부패는 매번 정권탈취 때면 등장하는 명분이죠. 농민은 자신이 농사지은 쌀을 줄을 서서 사 먹어야하고 줄을 서서 설탕을 사야하는 문제에다 성냥, 옷도 부족하고 그리고 라마 8세의 서거 사건 등 이 모두가 혁명을 일으킨 명분이죠.”¹¹⁾(138)라는 말을 보면 태국인의 지지를 얻는 명분은 국민의 경제난과 국왕관련 사건이다. 이것은 전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피분이 다시 권력 일선에서 2차 집정이 가능했

11) 이것은 여이가 차에 태워준 주민이 한 말이며 이 남자는 운전수가 여이인 줄 모르는 상태이다. 당시 여이처럼 몸에 흑표범 문신을 하고 여이 행세를 하는 나쁜 강도가 성행했지만 이 남자는 여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던 명분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쿠데타가 끊이지 않은 것은 “1947년에 혁명군이 권력을 찬탈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하나도 실천한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어”(167)라는 국민의 푸념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쁘리디와 그의 동조자들이 주도한 1949년의 ‘대궁반란’을 바라보는 뚜이는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자기 자신과 신념에 따라 사는 여이를 대비해 본다.

수도 한가운데서의 내전은 평행선상에 세워져있는 이념 때문에 발생했다. 승자가 늘 정당한자였다. 그의 옛 친구가 가담하고 있는 반란이 이번에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루영 끄릿싸다위닛은 자신의 원칙이 확고하게 서있다. 반면 그 자신은 이념이 있는가? 그가 한 가지 가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충실하다는 것뿐이다. 그는 감정은 배제한 채 단 하나 명령에 복종하도록 배웠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려고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날은 없다. 그것이 바로 그와 루영 끄릿싸다위닛간의 차이점이다.(235-236)

승자가 정의로운 자로 통하는 것에 회의가 들어 사직하려던 뚜이는 마음을 바꿔 자신이 체제 내에서 할 일을 깨닫는다. 친구인 르영 경찰대령이 ‘대궁반란’ 이후 요인 암살의 도구가 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 살생부 명단에는 뚜이의 동향인 동북부 자유타이 대원들 외에 여이도 포함되었다. 무고한 생명이 암살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한 뚜이는 “정치는 우리를 이용하는데 어째서 우린 정치를 이용하지 못하는가? 만약 내가 아직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오늘 밤 난 죄 없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죽지 않게 도와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240)라고 하며 암살 대상자의 명단을 여이에게 넘겨 귀중한 생명을 살리게 한다.

자유타이 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편에서 활약하여 태국을 승전국으로 이끈 주역들이다. 일본과의 공수동맹의 책임을 지고 전범이 된 피분이 다시 정권을 잡은 뒤 이들이 정적이 된 것은 나라의 손실이자 비극이다. 이러한 피분 정권에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편에 선 여이의 반란 모의가 늘 불발로 끝난 것은 아먼¹²⁾의 이중적 행동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였던 아먼 육군대령에 대해 여이는 “난 앉아서 맑은 물에 노니는 물고기를 보길 좋아했어. 반면 그는 귀뚜라미를 잡아다가 다른 애들과 같이 서로 싸움 붙이는 걸 좋아했어.”(184)라고 한 것은 인간의 심성은 어려서부터 표가 난다는 뜻이다. 사람의 천성은 타고나더라도 어려서부터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 거미리는 암호명의 인물이 아먼임을 알아챈 뚜이가 여이에게 “당신같이 뼈 육군원수에 대해 공개적인 적은 그자같이 측근에 있는 적만큼 두려운 존재는 아냐.”(186)라고 한다. 여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수상 피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대변한다.

“옳아! 오늘 당신을 만나서 난 깨닫게 됐네. 앞으로 난 정치에 얽히지 않겠어. 다시 뼈 육군원수를 타도하려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가 아침하는 친구와 부하들 가운데 있을 날도 길지는 않을 테니까. 그가 잘못 실수하면 뱀힐 테고. 맨하튼 호 반란이 그 실례지! 그가 인질로 잡혀있을 때 비행기 폭격으로 그가 죽길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 이런 삶은 그다지 맛볼게 못되는 맛이겠지. 그건 시한폭탄을 안고 자는 거나 같아..”(186)

수상 경호원으로 지낸 동안 뚜이는 피분이 대단한 애국자임을 깨

12) 아먼은 여이의 죽마고우이자 버위라멧 반란에 가담했던 자이다. 이후 여이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반면 아먼은 여전히 군대에 남아 있으면서 쿠데타 모의를 했다가 불리해지면 빠지면서 뒤통수를 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남는데 귀재인 인물이다.

닫는다. 하지만 아부의 위력은 “수상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오래도록 아침을 받다보면 성격이 변할지도 모를 일이었다.”(203)에 있다. 피분의 집권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뚜이의 평가는 민주주의가 아닌 군사독재이다. 피분 수상이 아침꾼에 둘러싸이고 의심이 많다는 점은 독재정치를 할 만한 여건이다.

“...1938-1944년과 1948-1957년간 수상 뼈 피분송크람 육군원수의 재임 때 기존 체제의 관습에 따른 국왕에 대한 국민의 생각·믿음·충성을 바꾸어 대신 국가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신 체제로 전환하게끔 하려는 대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주의’라는 명칭으로 잘 아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통치력을 발휘하는 데에 정당성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사용하고 입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헌법이 있을지라도 나 자신 비록 개인적으로 뼈 육군원수를 사랑하고 존경할지라도 그러나 이 체제의 실체는 군부독재체제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343)

결국 1957년 측근의 심복이었던 싸릿 타나랏에 의해 축출되어 도망자로 전락한 피분을 보는 뚜이의 심정은 “정치는 주인공과 악당의 대사가 쉽게 바뀔지도 모르는 연극이다. 진정한 친구나 영원한 적이 라는 말이 없는 연극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됐다.”(206)이다. 선악이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3. 사상적 대립에 대한 두 대처법: 싸릿 시대 헌법 17조와 브렘 시대 수상령 66/2523

(1) 싸릿 시대 헌법 17조에 의한 강경정책

싸릿 정권(1958-1963)은 공산주의자를 무력 진압하는 강경정책을

편다. 1963년 싸릿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뚜이는 이후 들어선 타넴 정권(1963-1973)이 계속해서 이 노선을 지향했음을 밝힌다.

1958년 10월 20일 싸릿 육군원수는 예정대로 돌아와 조용히 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싸릿의 단호하고 강력한 독재체제의 제1막이 열린다. “본인 혼자만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불사의 문구로.

그 시각 공산주의는 미국이 걱정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이었다. 싸릿은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총살할 수 있는 17조를 내세워 단호하고 강경하게 공산주의를 진압했다. 당시 일본에 망명해 있던 뼈 피분쑹 크람 육군원수는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싸릿을 일러 “단호하게 잘 처리하네.”라고 말했다.(282)

“혁명군은 정치가, 언론인, 노동자 학생 지도자로 이루어진 많은 공산주의 용의자를 구금했고 구금자 중 일부는 1959년의 왕국 헌법 17조에 의거하여 사형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에 대해 무력적인 강경 대응은 싸릿 체제 15년의 기본 정책이었지요.”(344)

르영은 뚜이와 동향인 태국 동북부 출신인 경찰이다. 르영의 부친인 완 선생은 외국인이건 자국민이건 간에 원주민을 학대하면 분노한다. 완 선생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유타이 대원이 된 계기는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교사이셨어. 오래 전에 정치에 관심을 두고 게다가 좌익으로 기우셨어. 일본군의 만행을 보시고 나서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야.”(243)와 같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기질 때문이다. 이후 그는 빈곤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돌보지 않는 정권에 분노하여 “누가 날 감옥에 가둔대도 상관없어. 여긴 민주주의 국가잖아.”(257)라며 대항하다가 공산주의 활동 혐의로 처형된다.

선생은 말했다. “통치계층이 하루하루 권력유지에 급급하고 동북인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머지않아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할 때의 상황이 여기서 일어날 거야.”

그는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칼 마르크스처럼 말씀하시네요.”
“1947년의 쿠데타가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언제 기강이 있었나. 사람들은 공포의 왕국에 살고 있어. 무장한 군인·경찰은 일부 정치가의 도구로 전락했지. 좋은 정치가는 다 살해당해서 거의 씨가 말랐어. 이러니 사람들이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거지...”
“사회주의라고요?”

“그래,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거야.”(256)

“공산주의 말입니까?”

“아니! 사회주의 말이야. 중공이나 러시아식의 공산주의 같은 필요는 없지.”(257)

그는 잠자코 있었다. 완 선생이 한 말은 옳았다. 그는 안다. 전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굶주리고 있어서 그가 젊은 경찰장교로 도적을 진압하던 민주주의 초창기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간에 침투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이상할 게 없었다. 정부의 해결책이란 오히려 17조로 강경하게 공산주의를 진압하는 거였다.(259)

“그래서 아저씨는 무력을 쓰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그럴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면 싸워야지. 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덤벼들어...”(260)

뚜이는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수도 근무에 염증을 느껴 고향 근무를 자원한다. 그러나 뚜이는 고향에서 완 선생을 검거하면서 “난 너와 다르지 않아, 르영 분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261)라 생각한다. 체제 내에 있는 한 어느 곳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공비 처형이라는 결과는 같아도 생명부지의 인물이라 반체제 인사로만 여기는 경우와는 달리 뚜이는 완 선생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처벌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싸릿 정권에서 행해진 공개적인 공비 처형방식에 대해 뚜이가 르영에게 “이런 식으로 총살하는 것은 여러 해전에 자유타이 대원을 암살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 넌 이번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잖아. 차이점이라면 바로

그 점이야.”(253)라고 한 것은 인명 경시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나 르영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는 정권의 도구나 출세욕에 눈먼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달라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똘이. 지금 태국 정치 상황 하에서는 이런 수상이 있는 게 가장 좋아. 더욱이 공산주의자가 깡패와 방화범들에게 침투하고 있으니 싸릿 육군원수 같은 절대적인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어야해. 생각해 봐. 수상이 단호하지 않고 부하가 존경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며 사는 게 어떻겠는지.”(253-254)

르영은 피분 정권하에서는 요인 암살을 주도하고 싸릿 정권하에서는 공비토벌에 앞장서고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장군의 반열에까지 오른다. 그에게는 단순히 정권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 합당하다는 공감의 있다. 시대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강경진압에 대해 “완 선생이 말한 주민의 총에서 나왔으니... 막다른 골목에 선 개! 국민 전쟁의 탄생인 ‘총성이 터진 날’ 1965년 8월 7일.”(262)과 같이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켜 국민의 무장봉기를 낳은 점에서 보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만하다.

당시 이러한 비극이 초래된 것은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세력을 확장했어. 정부는 강경한 방법으로 진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263)와 같이 세계정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이해하더라도 “정부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압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 무장봉기하게 됐다는 거지? 1965년 총성이 터진 날이 발생하게 됐다고?”(263), “아니면 강경 진압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앞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이 없거나.”(263)를 보면 정권이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브레임 시대 수상령 66/2523에 의한 포용정책

수상 브레임 시대에 접어들어 태국 정부가 취한 공산당 진압책은 1980년에 발표한 수상령 66호¹³⁾에 따른 유화적 포용정책이다. 강경 일변도였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취한 이러한 온건정책은 “입헌혁명 이후 거의 오십 년. 처음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개의 직선처럼 각 시기마다 변모되었던 민주주의 성향은 이제 동일한 한 직선으로 합치려고 방향을 틀기 시작하니!”(357)와 같이 성공가능성을 시사한다.

“진짜 계획은 어젯밤에 막 발령한 66/2523 수상령이야. 그건 무력진압 계획이 아니고 단지 정말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와 정치를 통해 공산주의자를 진압하지는 정책이지. 라오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영리해서 말이야. 공산주의자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주주의 체제뿐이기 때문이야.”(356)

이러한 유화정책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태국은 국내사정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정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싸릿 노선에 중지부를 찍게 한 학생·시민 의거는 1973년 10월 14일에 발발한다. “싸릿 체제의 쇠퇴와 도시 중산층인 상인 기업 그룹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쇠퇴하는 정권과 성장하는 민간인 양측의 힘의 대결이었습니다.”(344)의 결과는 ‘민중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후 3년간 태국 상황은 혼돈 그 자체이다. “삼 년 내내 노동자·대학생·지도자 암살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세력은 태국인을 사살하는 첫발의 총알로 인해 힘없는 태국 공산당이었던 판도가 돌변하여 지식인으로 가득 찬 시위로 확대될 것을 예상치 못했다. 태국 공산당이 정권의 구상에 의해 이만한 힘을 가진 적은 역사상 유

13) 실제로 이 정책의 핵심은 정부는 중도노선을 취하고 평화적 대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레었던 일이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312) 태국을 더욱 대치 정국으로 몰아간 것은 “1975년 5월 인도지나반도에서 공산주의자의 승리 소식은 태국 정부와 통치 계급을 대단히 놀라게 했습니다. 게릴라전이 많이 늘어났고 태국 공산당은 유리한 위치에 서서 국내 외적으로 정치적 세력을 확장했습니다.”(344)와 같이 주변국가의 불안정한 정세이다. 이러한 혼돈 상황의 내막에 태국 군부세력이 개입 됐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는 1976년 10월 6일 군부 쿠데타의 발발과 이후 집권세력이 취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억압 때문이다.

“미군기지 철수 요구에 군부에서는 의지처를 상실하게 될까 우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말에 우익계열의 신뢰를 유도하는 선전구호가 나돌았고 ‘우익에 의한 좌익분쇄 작전’이 개시되어 학생·농민·노동계 지도자가 여러 명 암살됐습니다. 이후 군부에 의해 1976년 10월에 정권 탈취가 감행되어 다시 정당·국회·헌법 철폐가 공포됐지요. 신내각은 정부 비관을 철저히 제한했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각종 정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으며 정치 집회를 모조리 금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얄은 소견이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태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공산국가가 국가 간 정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자 공산주의의 위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344-345)

냉전시대 공산당의 계획이란 “태국을 포함하여 각국에 스파이를 잠입시키는 거였어.”(352)이다. 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주변국이 기울인 노력이란 태국에 외국인 스파이를 기르는 것이다. 여이는 목숨을 걸고 이러한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공산당에 접근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들도 희생된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려면 여이와 같은 지도자적 인물의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그들은 잠재력이 있는 베트남 아이들을 선발해서 어려서부터 태국에 들어와 살도록 했어. 태국 국적을 취득하고 태국 학교에서

태국어를 배우고 대학교 수준의 고등교육도 받게 해서 미래에 핵심이 될 공작 요원을 양성했어.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부대 병력 통솔계급 군인이고 일부는 검사, 외무성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작 요원으로 내가 발견한 서류는 다름 아닌 그 19명의 공작요원 명단이네!”(352)

“난 범을 잡으려면 범 굴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산당 큰집에 들어갔던 거야. 나같이 나이든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고 할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사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 하기에 가장 적합해! 난 이 임무를 혼자 수행했어. 난 여러 시기에 걸쳐 정부에서 제거하고자한 사람이었어. 실패한 혁명가였고, 거사 계획세우는 데 도사인 군 장교였지. 그래서 난 태국 공산당이 팔벌려가며 환대한 인물이었어. 난 이 기회를 틈타 아무한테도 의심 받지 않고 태국 공산당에 침투할 수 있었어. 그들은 내 아들딸이 정부군 총에 맞아 죽자 더욱 날 신임했어.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태국 공산당에 더 오래 머물 거라고 믿은 거지.”(354)

대치 정국의 해결책을 찾고자 직접 공산당에 침투한 여이나 이런 여이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 나선 뿌이나 이런 인물의 목숨을 건 행위에 대한 형상화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나라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이가 뿌이에게 정권의 독재정치가 정국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한 것은 정부는 국민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죄를 덮어씌우기에 따라 달렸지. 당신네들이 늘 하기 좋아하듯. 단지 이 삼림에서는 우린 당신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당신을 여기서 쫓아 죽일 수도 있어. 친애하는 중장님,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공산주의자이었던 적도 없고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과 합세할 수도 있소. 당신네들이 그들을 이지경이 되도록 내몰았기 때문이요. 당신네들은 그들을 삼림으로 내몰고는 하는 말이 그들은 매국했다고 하오. 난 이 젊은이들이 당신네들 못지않게 애국자라고 생각하오. 공산주

의는 지독한 독재요. 그러나 맹세코 말하건대 당신네들도 독재이기는 마찬가지요. 단지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자라고 할뿐.”(319)

여이는 뉘이에게 “공산주의자는 내 아버지가 아냐. 그들 없이도 난 혼자 삼림에서 지낼 수 있어. 또 하나는 나는 너무 여러 번 도망자 신세로 추락했어.”(322)라고 하며 밀림에 당분간 머물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은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뭐든 좀 좋아지거나 혹은 이 아이들이 사전에 살해되지 않고 정말 집에 돌아가서 계속 공부할 수 있고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국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322)와 같이 공산주의자로 몰린 학생들도 구하고자함이다.

여이가 지적한 무력진압의 폐단은 “난 우리 민주주의가 늘 가다가 딱 멈춰 서곤 했던 게 공산주의자들을 급속히 배출시킨 근본 이유라고 생각해. 정부에서 강경 진압책을 쓰면 쓸수록 태국 공산당도 그만큼 더욱 강해졌지! 태국 공산당은 질질 끌어가며 게릴라전을 펴는 데는 도사거든.”(353)처럼 효과가 없어서다. 포용정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이의 아들 파잇이 정권의 무력진압에 밀려 밀림에 숨어든 대학생들은 실은 진정한 애국 청년이라고 한 말에서 정부의 유화적 포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이 보인다.

“누구나 조국을 사랑한다고들 하지요. 우린 태국에서 태어났고 조국을 사랑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곳을 사랑해요. 그러나 조국이니, 종교니, 국왕이니 하며 연신 들먹이는 일부 인사들처럼 사람들에게 알려려고 떠들어대지는 않습니다.”

그는 얼굴을 끄덕였다. “그럼 자네는 이 삼림에 들어와 살아서 더 좋아진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흑뿔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제게는 이곳이 좋습니다.”

“자네 친구는...누구 죽은 사람이 있나?”

파잇은 대답했다. “함께 했던 동급생이 세 명 죽었어요. 모두 애국 청년이었고 좋은 목적으로 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릴 마치 국가에 반역하는 적처럼 취급해요. 심지어 스님조차도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나...”

“자네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나?”

“아닙니다. 아저씨는 이 사건의 배경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대학생 중에 일부 진짜 공산주의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녜요. 우린 단지 서로 비슷한 목표를 가진 공동노선일 뿐이지 결코 같지는 않아요!”(324)

대학생이 들어간 동북지역에서 원주민과 경찰의 대치 상황은 탁썬 경찰하사의 말에서 드러난다. 밀림에 있는 여이를 만나러 나선 뚜이에게 탁썬은 자신이 경찰이 된 이유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주민을 괴롭히는 경찰과 자본가를 막고 경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동북지역 상황은 “거의 모두 붉은 땅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선동되기 쉬워요.”(311)처럼 주민의 행동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이것을 아는 뚜이도 태국에서 공산주의자를 몰아내자면 포용정책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자는 저항 무대로 정치에 의지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할 길도 정치에 기대야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 같은 무력진압만 사용해서는 안 돼! 공산주의자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먹이기 좋아하는 명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나쁜 제도라는 거야. 탄압하고 계층을 나눈다는 그들의 지적은 옳아. 왜냐하면 우리 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시종 엇치락뒤치락 해왔거든. 그래서 단일 그룹 군부독재의 손아귀에 쉽게 떨어지게 됐고 그 결과 국민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야.”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거야. 절대 다른 길은 없어.”(347)

태국은 “66/2523 수상령으로 태국 내의 공산당을 해체시키고야만 것처럼 말이지.”(358)처럼 포용정책으로 국가 통합에 실효를 거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보다 주목할 점은 “난 그 수상령 때문에 태국 공산당이 전복된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 이 공산주의 사상은 늦든 빠르든 간에 전복되게끔 되어 있었어. 인간성과 상반되는 성향이기 때문이지.”(358)라는 점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승리이다.

4. 잔인한 5월 사태의 교훈

깡완과 통차이 이 두 사람이 소속된 파벌간의 대결 양상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태국 정치는 또다시 양상을 달리하여 새시기로 진입했다. 국제 사업가의 시기에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진입한 사업가인가? 아니면 사업의 기반으로 정치를 이용하는 정치가인가?”(395)이다. 통차이는 여이의 은인의 아들이자 여이가 사는 마을 국회의원이다. 상관인 피치 장관이 부정 축재자로 걸려 재산이 압류되자 국가평화유지군과 수상 쑤찐다에 정치적 원한이 있다. 깡완은 사업가로서 인도지나 반도 국가 간의 자유무역에 관한 기획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계에 입문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무기장사로 군 장교와 연계된 인물이다.

“어르신은 동북인들이 이 계획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게 될지 아십니까, 계획대로 건설되는 기간과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요? 정부의 어떤 경제개발계획보다 분명하게 실제로 지역적 발전이 확산될 겁니다. 방콕으로 흐르는 노동력은 멈출 겁니다. 우리 태국의 발전이 아직 여전히 중심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한 다른 지방 사람들은 때를 지어 줄줄이 수도로 일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방콕은 도시가 마비될 겁니다.”(384)

태국 동북부의 발전을 위한 기획안이 무산되는 것은 “정치가들의 원칙이란 게 ‘만약 내가 먹지 못하면 너도 먹을 생각 말라.’는 거지. 그들은 누구를 위한 기획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기획한 자가 다음 선거 때 그 기획을 표 끌어모으는데 유리하게 쓸 것인가 하는 데에만 있어.”(386)처럼 나라의 발전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통치 일당의 속셈이란 “자네들은 국가평화유지군이 있든 없든 이득을 얻겠지. 만약 국가평화유지군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자네들은 장관이 되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맡아먹겠지. 만약 국가평화유지군이 무너지면 자네들도 재산 몰수당한 한을 풀겠고.”(391)와 같이 이중적 정치게임이다. 목적달성이 중요할 뿐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자네들은 9개 정당의 비준을 거부하는 배신을 저지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가?”

청년은 웃었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겠죠. 한두 명 단식농성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일은 자연 조용해지죠.”(393)

“5개 연합 정당이 비준을 거부한 후 시위대에서 기약한 17일인 오늘 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십만 명은 족히 될 듯하며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396)

짬뽕 전 방콕시장이 국민 선출에 의거하지 않은 쭈찐다 수상의 퇴진 요구에서 불거져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어 일어난 것이 1992년 5월 사태이다. 이 사건이 지난 후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뚜이와 여이가 방콕 림피니 공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다.

“자네는 태국 민주주의가 커다란 싸이 나무 같다고 생각지 않나. 권력은 폭풍과 같고, 폭풍이 위협적으로 불면 싸이 나무도 심

하게 흔들리지. 그래도 어쨌든 이 민주주의 나무는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디어 내었어.”

“얼마 전의 5월 사태는 그것을 또 한 발자국 성장시켰어.”

“그렇지도 모르지. 그러나 법과 배치되는 사면으로 무죄가 적용되는 한 난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독재 권력의 씨가 아직 마르지 않은 거야.”

“자유를 구가하는 정치체제하에서 독재를 제거하기란 어렵지. 그건 건재해. 단지 다른 형태로 숨어있을 뿐인지도 모르고.”(11)

‘잔인한 5월 사태’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에 상응한 처벌 없이 사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면조치가 옳은 것인지 국민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뛰이와 여이에 게서 볼 수 있듯 태국 국민들 스스로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고 태국 실정에 맞는 지도자를 가려내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공감을 표명할 때 공감의 사회가 도래한다.

IV. 결론

원 리어우와린의 『평행선상의 민주주의』는 1932년 입헌혁명 후 1992년 잔인한 5월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60년간 벌어진 태국 역사상 실제 사건에 허구의 두 주인공이 개입되고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형상화된 소설이다. 이 두 남자는 반체제 인사인 여이와 그를 추적하는 체제 안의 인물인 경찰 뛰이이다. 애국심과 올곧은 성품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이 두 사람은 의로운 동지가 된다.

여이와 뛰이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각 사건에 대해 신뢰와 불신 그리고 희망과 분노의 감정을 보인다. 왕정체제였던 태국에 민주주

의가 정착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충돌 및 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역동적으로 형성된다. 불교와 브라만교 그리고 토착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태국인의 정신세계에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서면서 이의 실행 과정 중에 벌어진 끝없는 갈등과 충돌은 결국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화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다.

태국은 각 시대마다 세계정세의 변화에 잘 대처하고 국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게 해주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목적은 같으나 이를 이루는 방법이 지도자마다 서로 달라 공감하는 바도 서로 다른 현상이 발생했다. 태국인의 공통된 공감대는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고 부강한 태국을 만드는 데에서 형성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화합과 공존의 지구공동체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오늘날 지구공동체적 시각을 가진 개인은 조국과 세계의 국가가 한 운명체임을 인지하고 행동할 필요성을 자각한다. 사회구성원이 이러한 공동체 유지에 걸리는 돌을 걸러내는 작업에 머물지 않고 조금만 더 수고하여 이 돌이 있어야 할 곳이나 필요한 자리를 찾아 배치한다면 분명 걸림돌도 중심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 세계주의적 사고와 면모를 찾아보는 작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화해와 조화를 내포한 거시적 의미에서의 공존의 미학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윈 리어우와린, 공감, 역동성, 감성, 태국

〈참고문헌〉

- 니콜로 마키아벨리. 2009. 『군주론』. 변용란 역. 서울: 아름다운 날.
마이클 샌델.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서울: 김영사.

- 이병도. 2004. “1920-1940년 기간의 태국-일본 관계.” 『동남아연구』 14-1: 157-185.
- _____. 2010. “태국과 일본의 관계- 2차 대전 시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2: 237-266.
- 제러미 리프킨.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 최난옥. 2000. “한국-태국 근대 문학의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09. “씨부라과와 후대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주의 연구.” 『외국문학연구』 35: 263-283.
- _____. 2010. “씨부라과의 소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에 나타난 창조적 자본주의.” 『동남아연구』 20-1: 233-259.
- Atthachak Sattayanurak. 1998. *Kanplianplaeng Lokathat khong Chonchan Phunam Thai tangtae Ratchakan thi 4-2475*. (라마 4세-1932 태국 지도자 계층의 세계관의 변화).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 Chusak Patrakunwanit. 1995. “Win Lyovarin SutSamret lae re Naeutotlung.”(원 리어우와린 실험의 공식인가). *Sarakadi*. 11(27): 166-168.
- Ingon Suphanwanit. 2009. *Nawaniyai Nithat*.(장편소설 전서).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 Nithi Iaosiwong. 2002. *Krungtaek, Phrachao Ttak lae Phrawattisat Thai*.(수도 함락, 딱 왕 그리고 태국 역사). Bangkok: Matichon.
- Nittaya Masawisut. 1997. “Win chang kao Pai! Siwa rangwan Niyai Seawrite.”(원 입성! 동남아문학상). *Kausot*: 11.
- _____. 1999. “Siankrachung Haeu Krachai Win Lyovarin Hakkong Ble Seawrite.”(원 리어우와린 동남아문학상 두 번

- 획득). *Matichon*: 87.
- Pichamon. 1997. "Win Lyovarin Nakkhian Rangwan Sea write pini kap Chintanakan bon tua Nangsu."(올해 동남아문학 수상작가 윈 리어우와린과 상상력). *Sakunthai*. 44(2246): 97.
- Saichon Satayanurak. 2003. *Somdet Kromphraya Damrongrachanuphap Kansang Atalak 'Muangthai' lae 'Chan' khong Chaosayam*(솨뎃 끄롬프라야 담롱라차누팍: 태국과 싸얌인 계급의 정체성 형성). Bangkok: Matichon.
- Satpoom laoo. 2003. *25pi seawrite*.(25주년 동남아시아 문학상). Bangkok: Siam inter books.
- Srisak Wanliphodom. 1999. *Krungsriayudhya khong Rao*.(우리의 아유타야 왕국). Bangkok: Matichon.
- Thanet Waetpada. 1997. "Democracy on Parallel Paths:*Nawaniyai lo Kanmuang lo Chiwit*."(평행선상의 민주주의: 정치풍자, 인생풍자 소설). *Sayamrat Sapdawichan*: 52.
- _____. 1999. "Totrahot Technique khong Win Lyovarin."(윈 리어우와린의 기법). *Nation Sutsapda*: 60-61.
- Watchara Bunjanya. 2002. "Wikhro Konrawithi Kannam Sanoerueang nai Ngankian khong Win Lyovarin."(윈 리어우와린 작품의 표현 기법 분석). Master Thesis. Bangkok: Sri Nakarinwirot University.
- Wayun. 1997. "Seawrite Lasut Win Lyovarin."(동남아문학상 최종후보 윈 리어우와린). *Preusutsapda* 15(350): 18-19.
- Win Lyovarin. 1997. *Prachathipatai bon Senkhanan*.(평행선상의 민주주의). Bangkok: Dokya.

(2010. 12. 25 투고; 2011. 1. 16 심사; 2011. 2. 20 게재확정)

<Abstract>

Dynamism of empathy on Win Lyovarin's novel
Democracy on Parallel Paths

Choi, Nan-O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work shows dynamism of empathy which Thailand experienced while its monarchy was replaced by democracy with conflicts and harmony. In this work, two imaginary protagonists are put into the most important period in Thai history, from the political reform of the absolute monarchy in 1932 up to Black May in 1992, for 60 years. With the writer's imagination, they are actualized into the historically important situations with reality. One of them is Yeoy, a dissident and the other is a police officer, a concenter, who chases after him.

In this dissertation, empathy is analyzed which the characters feel about real incidents in their country through trust and doubt, hope and anger. This research on emotional circumstance is all about figuring out the direction for harmony and coexistence.

Thailand needs a powerful leader who deals with swiftly changing worldwide affairs and domestically economic matters. Even if their leader has the same destination to get to, their approach to it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conflicts come out and misunderstanding

makes situation worse. Public sympathy among Thai is that Thailand contribute to global mutual prosperity, by which Thailand becomes a powerful and influential state in making the world harmonious and prosperous.

Key words: Win Lyovarin, empathy, dynamism, emotion, Thailand